



##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전원 철수 완료

- 잼버리 정부 비상대책반(반장 한덕수)은 9일(수) 전북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숙영지에 머무르던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, 국제운영요원(IST)들이 이날 낮 12시를 기해 전원 철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.
  - 이들은 지난 8일(화) 청소년 참가자들과 지도자들이 태풍 카눈을 피해 수도권 등 8개 지자체 숙소로 떠난 뒤 하룻밤 더 숙영지에 남아 정리 작업을 해왔다.
-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청 공직자들은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남긴 물품이 강풍에 날아가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, 연맹 및 IST 인력이 철수한 뒤 숙영지 전역을 깨끗하게 청소할 예정이다.
  - 삼성그룹과 SK그룹 신입사원 훈련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청소 작업을 돕기로 했다.
- 비상대책반 고위관계자는 “9일 중에 땅에 떨어진 물품과 쓰레기를 모두 줍고,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소형 시설물도 빠짐없이 수거할 계획”이라면서 “샤워시설처럼 지면에 고정된 대형 편의시설은 태풍이 지나간 뒤 전문업체가 마저 철거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사회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옥선경 (044-200-2325)
		담당자	서기관	김윤경 (044-200-2332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훈 (044-200-2327)